

TwoWings 1500 vision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

담임목사 **강승신**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56

전화 032.345.8031-2

팩스 032.345.8033

홈페이지 www.ylch.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큰날개 주일예배

	전통예배 오전 9:00	축제예배 오전 11:00	젊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예배로의 부름 찬양 10장	예배로의 부름 찬양 나는 오늘도 가네	노피어 찬양단 찬양 온 땅의 주인
고백과 헌신	교독문 16. 시편 28편 신앙고백 찬송 91장 기도 정은주 집사	기도 권진희 집사 성도의 교제	기도 최민지 자매 광고 및 환영
말씀과 결단	마태복음 4장 23~24절 (신약 5) 위대한 복음 앞에 설교 담임목사		
축복과 파송	봉헌 93장 축도 담임목사	봉헌 주의 나라가 축도 담임목사	봉헌 주님 뜻대로 축도 담임목사 나눔과 교제

공동체예배 15:00	4월 예배위원	
가정 예배	[다음주 기도] 전통예배 백현옥 집사 축제예배 이은숙 권사 젊은예배 유한나 자매	[봉헌] 전통예배 김영숙 이해경 축제예배 박용수 임경진 김화심 박현숙 정세희 젊은예배 박해인 최민선
수요기도회 19:30	5월 봉헌위원	
가정 예배	[전통예배] 김정화 한미라	[축제예배] 서동협 정오영 김해숙 서덕이 정영아



오늘의 말씀

위대한 복음 앞에

[마태복음 4장 23~24절]

첫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니다.

둘째, 그 승리는 ()이라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작은날개 목장나눔

송이꽃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1-14]

W

WELCOME

환 영

..... ICE BREAK를 해봅시다.

W

WORSHIP

경 배

.....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W

WORD

말 씀

.....
꽃처럼 달콤한 휴가로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 터키, 이란, 사우디 같은 중동
- 일본, 중국, 홍콩, 대만 같은 동북 아시아
-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 아시아
-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같은 북유럽
-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같은 서유럽
-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같은 북아메리카
-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남아메리카
- 호주, 뉴질랜드 같은 오세아니아
- 이집트, 가나 같은 아프리카
- 기타

Q

QUESTIONS

질 문

1. 하늘과 땅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1절) 낮과 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2-4절) 시인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5-6절)
2. 말씀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7-8절) 여호와와의 경외하는 도와 여호와와의 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9-10절) 시인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14절)
3. 본문에서 나오는 다양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죽은 영혼, 메마른 내 영혼을 살리소서(7절)
 - 우둔한 나를 깨우쳐 나아갈 바를 알려 지혜롭게 행하게 하소서(7절)
 -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소서(8절)
 - 분명하고 확실하게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게 하소서(8절)
 - 변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9절)
 - 말씀이 금처럼 귀하고 꿀처럼 즐거운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10절)
 - 기탄:
4.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서로 나눈 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W

WITNESS

증 거

이번주 행복모임의 진행현황과 베스트와의 관계맺기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W

WORK & PRAYER

기 도

돌봄이 필요한 목장가족이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1) 문제를 맡기며 기도
- 2) 베스트와 행복모임을 위해 기도
- 3) 치유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 4) 축복기도



간증나눔

변화된 신앙의 모습

- 청년A-2목장 이상훈 형제 -

안녕하세요. 이번 양육반 8기 과정을 수료한 청년 A2 목장 이상훈 청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저는 제자대학을 6기로 졸업하였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약 2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나름대로 제자의 삶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들처럼 군대를 갔다와 취업도 하고 현재의 직장을 다니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처럼 저의 신앙생활도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 예배의 기쁨이 사라져갔고, 목장 식구들과의 교제에도 흥미가 없어지며, 그 저 의무감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훈련기간마다 다시 훈련을 받아보라고 권유하는 우리교회 집사님과 권사님은 저의 기피대상 1호였습니다. 저 멀리서 그림자만 봐도 비전홀 커피머신 뒤에 숨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앙생활에서 감사와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다시 변화시켜 보자는 마음으로 이번 양육반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훈련의 프로세스를 모두 지나온 기억이 있어 양육반에 대한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훈련받는 과정이고 그저 거쳐가는 시간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을수록 훈련

의 말씀은 저의 마음을 다시금 뛰게 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5가지 확신 즉,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배우며 특히 구원의 확신 과에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많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필독서를 읽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사랑의 관계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번 목장모임에 참석은 하지만 목장식구들이나의 영적인 가족이라 생각하진 않았습다. 그것은 저의 마음이 강박하여 사랑의 관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목장모임에 참석하기 귀찮아했던 나의 마음을 회개하였고, 마음을 열어 목장모임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장모임을 하면서 목장모임 가운데 느껴지던 가식적인 모습들이 진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목장 식구들을 섬겨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반에서 여러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 성령충만 받아오기 숙제를 위해 금요철야에서 동기들과 함께 맨 앞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매번 참석하던 금요일야 였지만 첫 번째 찬양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를 사로잡으시며,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지금까지 맛볼 수 없었던 더 큰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백지전도 실습을 할 때 에는 용기가 없어 일주일 내내 헛되이 보내다가 토요일에 가까스로 전도팀과 함께 지역전도를 나가서 실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 격렬하게 거부하는 사람과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교회에 나가겠다며 웃는 얼굴로 이야기 해주는 사람 등을 만났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에 기쁨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했던 전도인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전에 10년간의 저의 신앙생활은 겉보기엔 항상 예배의 자리, 목장모임의 자리에 있었으나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장이 없는 신앙은 퇴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의 감격을 빼앗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훈련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경험하며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에 대한 작은 열망을 통해 저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양육반 동기분들과 함께 달려갈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10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저의 신앙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무감이 기쁨으로 바뀌고, 내 안에 사랑의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앞으로도 영적 성장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양육훈련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신 목장식구들과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칼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인류 최대의 공적인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리의 파티를 열고 광빠레를 올리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신앙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왜 그랬느냐? 무엇 때문이냐? 따지거나 묻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부활 신앙을 갖도록 독려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에서 능력과 권세, 은혜와 축복,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모든 오해, 박해, 환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정신 차릴 수 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들이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을 두렵게 하는 것, 질

병, 실패, 가난, 따돌림, 그 어떤 두려움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겁쟁이였던 제자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고 무능한 오합지졸에 불과하던 사람들을 통해 로마를 넘어서게 하였습니다. 이 신앙은 수 백 년간의 모진 박해에도 견디고 이기게 하였고 수 천 년 동안 이교, 사이비, 이단들의 난동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하여

내 손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힌 손, 창자국 있는 그대로 보여 주셨습니다. 확인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손을 조심스럽게 만지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진하게 가슴에 와 닿는 주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예수께서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감격을 느끼고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제자들의 발걸음에 힘이 생기고 음성도 달라지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행동의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으신 질문에 마지 못해서 하는 대답이 아니라 확신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하십니다.

도마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 경험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 가셔서 자신을 숨기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불타지) 아니하더냐 하고?”(눅 24:32). 불완전한 손이나 눈으로 확인하고 신뢰하지 말고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이 타 올라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모두 믿음을 갖게 되는 자리에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와 함께 하는 자리에서 빠졌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부활의 첫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나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것

이 중요한 것처럼 그 중요한 믿음의 현장이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성령 충만했습니다. 만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 은혜, 그 능력,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할 믿음과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과 헌신의 자리, 신앙의 결단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잊어버리고 도마처럼 영똥한 소리 하지 말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이다”(요 20:28)라고 힘있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금주 도기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 흔들림 없는 비전과 영력과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끄시고, 봄사역을 준비하게 하소서.

- 목사님에게 영적 담대함과 민감함을 허락하시어 언제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2. 봄 사역을 위해서

- 봄사역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5월 첫주에는 모든 사역들이 힘있게 시작되게 하소서.

3.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 인도에서 코로나로 인해 한국인 비자를 전부 무효화 처리를 하게되었고, 다시 해외를 나가면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선교사들이 관광비자인 상황으로 비자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발급되도록 하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

1. 김정화 집사

- 건강 검진 결과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와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정상수치로 돌아오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도 잘 감당하게 하소서.

2. 최민지 자매

- 임파선으로 인해 미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서 몸살이 자주 걸립니다. 그리고 왼쪽 발목 근육에 염증이 생겨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3. 백현옥 집사

- 도현이와 소울이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들로 예수님께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의 감사

- 새로운 일터에서 귀한 월급 받을 수 있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회사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승리로 코로나 질병을 이기게 하소서.

- 어머니가 무사히 새가족반을 수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에 잘 정착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 새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아도, 산모도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부활의 승리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이번주 소식

1.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난 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 열방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새 봄 사역이 준비중입니다. 5월 첫째주에 모든 사역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양육과 훈련이 시작됩니다. 시간을 잘 기억하시어 훈련 받는 일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캠프 - 5/2일(토)
양육반 - 5/3일(주일) 오후 4시 30분
제자학교 - 5/3일(주일) 오후 4시 30분
제자대학 1학기A - 4/18(토) 오후 5시
제자대학 1학기B - 4/29(수) 오후 8시(첫시간만 수요일 진행)
제자대학 2학기 - 4/28(화) 오후 8시)
4. 3,6,9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5. 2020 여름 두날개 필리핀 아웃리치가 7월 20일(월)부터 25일(토)까지 진행이 됩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4월 30일로연기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유한나 팀장)
6. 오늘 축제예배 후에 정기제직회 모입니다. 제직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 집사 이상 필수 참석)
7. 5, 6월 셀라이프를 주문 받습니다. 오늘까지 목자 제자대학팀(팀장 : 나승미 집사)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 5,000원 / 연간구독 30,000원)

다음주 봉사

[주방봉사]
주방사역관리 담당 : 정일숙, 황귀순 권사

[청소]
본당 : 여성C-4목장(박영자 목자)
준2층,계단 : 여성D-2목장(나승미 목자)
2층 : 여성B-1목장(김영숙 목자)
3층 : 여성A-5목장(김화심 목자)
비전홀, 멀티룸, 화장실 : 청년공동체

환영합니다

20-07 유성비 형제 (인도자: 김태완 형제
섬김이 : 사공세진 형제)

우리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세계비전을 품고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전체가 모여 감동적인 축제로 드리는 대그룹의 축제예배이며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목장모임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동안 그들을 찾아 쉬지 않고 섬기고
복음전하며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며 열정으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예 배 시 간

전 통 예 배	주일 오전 9시
축 제 예 배	주일 오전 11시
젊 은 예 배	주일 오후 1시 30분
공 동 체 예 배	주일 오후 3시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9시 30분
유 아 부	주일 오전 11시
유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청 소 년 부	주일 오전 9시
작은 날개 모임	목장별 정한 시간

섬 기 는 분 들

담임목사 강승진	장 로 이성근 이승길
전 도 사 장요진 권요섭	
원로목사 강경원	원로장로 최기준

온라인으로 예일교회를 만나는 방법

스마트폰 QR코드 어플을 사용하세요.

홈페이지 www.ylch.org

모바일홈 m.ylch.org

페이스북 Yeil0691 Church

KT올레TV CH888, 예일교회 검색

온라인 봉헌 농협 351-0446-9239-73(예일교회)



마을버스

51번, 51-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시내버스

5번, 12번, 20번, 5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75번 (역곡 남부역 하차)

시외버스

83번, 88번 (역곡 남부, 괴안동 입구)